

아벨라르두스 ‘의도의 윤리학’의 현대적 이해

— 결과론적 윤리이론의 한계와 의도의 윤리학 —

안준상

(서울대 철학과)

1. 시작하며: 아벨라르두스의 현대적 이해를 위한 서론

철학사를 사상적 대결의 역사로 바라보는 일은 축구경기를 보는 것처럼 언제나 흥미로운 일이다. 어떤 점에서는 오히려 철학사의 대결이 더욱더 흥미로운 구경거리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축구 팬이 축구 역사를 통틀어 최고의 영웅들이라 불릴 만한 펠레와 마라도나, 차범근의 대결을 직접 보는 일은 불가능하지만, 철학사를 공부하고자 하는 이들이 철학사 전체를 통틀어 최고의 기량을 가진 드림팀을 대결 시키는 일은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시대, 전혀 다른 배경 속에서 등장한 두 사상을 과연 같은 층위에 올려놓고 서로 대결하도록 하는 일이 진정으로 가능할까? 물론 누군가는 이러한 시도를 전혀 다른 룰을 가지고 움직이는 농구선수와 축구선수를 같은 경기장 안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떤 이론이 과거에 그랬던 것과 같이 현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려면 그를 위한 타당한 룰을 정해야 한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룰 중 하나는 과거에 그 이론이 제시했던 어떤 해결책이 현대의 문제에도 동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이는 것이다. 그 해결책이 현대의 문제에 대한 동일한 대안일 수 있는 것은 그 사유가 해결하려 했던 과거의 문제와 그 사유를 다시 적용하려 하는 현대의 문제가 결국 같은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어떤 사유의 현대적인 적용을 보이려는 사람은 그 사유가 극복하려 했던 당대의 문제와 현대의 문

제가 사실상 같은 것이라는 점을 논증해야 한다.

필자가 시도하고자 하는 작업은 바로 그러한 경기를 구경하고자 하는 것이다. 필자는 12세기, 아벨라르두스가 제시했던 의도의 윤리학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다시 이해해보며, 아벨라르두스의 사유가 현대에 등장한 윤리학의 유력한 이론과 대결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현대인의 정신세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이려 한다. 필자는 최종적으로 아벨라르두스가 자신의 신정론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며 제시한 윤리이론이 결국 현대의 결과론적 윤리이론이 가진 한계에 대한 극복도 될 수도 있음을 보이려 한다. 그를 위해서는 우선, 아벨라르두스가 자신의 신정론이 가지는 한계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사실을 보여야 하고, 아벨라르두스가 극복하고자 하는 신정론과 현대의 결과론적 윤리이론이 사실상 같은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설명이 타당하다면, 결국 아벨라르두스가 제시하는 윤리학은 그가 1,000년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이 현대의 결과론적 윤리이론을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벨라르두스의 윤리학이 당대에 가졌던 한계가 있다면, 그것은 동시에 아벨라르두스의 윤리학이 현대에도 가질 수 있는 한계일 것이다. 필자는 보고서의 말미에 이르러 아벨라르두스의 윤리학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언급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아벨라르두스 윤리학이 가진 가장 특징적인 면모인 ‘의도의 윤리학’에만 논의가 집중될 것이다. 그리고 의도의 윤리학의 한계와 그를 통해 남게 되는 논의점을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이 글을 마무리 지으려 한다.

2. 신의 인식론적 한계와 아벨라르두스의 윤리학

세계의 창조자인 절대적 유일신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은 모든 종교는 신의 전지, 전능, 전선을 인정하면서도, 이 세계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악의 존재에도 합당한 설명을 제시해야 하는 신정론의 문

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기독교 또한 마찬가지이다. 일차적으로 기독교 신학자인 아벨라르두스의 윤리학은 이러한 신정론의 지평 안에서 전개된다. 아벨라르두스의 신정론은 “비록 선이 악이라는 것은 결코 참이 아니지만 악이 존재한다는 것은 선이라는 것”¹⁾이라는 설명으로서 시작한다.

아벨라르두스는 선과 악을 각각 ‘사물로서 존재하는 악이나 선 그 자체’와 ‘선이나 악이 존재한다는 사태’로 구분해서 생각하고자 한다.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폭력, 부정부패, 질병과 가난 그리고 죽음 같은 것들이 분명하게 하나의 악이라는 점을 아벨라르두스는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악에도 불구하고 신의 선함이 보장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악의 존재 사실’이 반드시 악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매우 많은 담배를 피워서 심각한 폐암에 걸렸다고 하자. 그러나 그는 자신이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에 자극을 받아 담배를 끊고 열심히 식이요법을 행하고 운동을 하여 결국 폐암에 걸리기 전보다 몸이 더욱 건강해졌다. 이 예시에서 아벨라르두스가 제시하고자 하는 선과 악의 두 층위는 바로 ‘폐암’ 자체, 즉 세계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악과, ‘폐암을 통해서 다시 건강하게 된 일’, 즉 사태로서의 선이다. 전자를 사물적 악과 선, 후자를 사태적 악과 선이라 규정하는 아벨라르두스는 바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들을 이처럼 단지 하나의 동일한 악이나 선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이중의 구조를 가진 선과 악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즉, 현재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현실에서 발생하는 ‘폐암’과 같은 악도 결국 신이 직관하고 있는 차원에서는 ‘다시 건강해짐’과 같은 선이 될 수 있다.

아벨라르두스의 이러한 구분을 인정한다면, 이는 사실 매우 설득력 있는 신정론으로 보인다. 악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악이 결과적으로 ‘사태적 선’으로 수렴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으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세계에 악을 허용한 신의 존재를 어느 정도 납득

1) P. Abelard, *Collationes*, edited and translated by John Marenbon and Giovanni Orlandi, Oxford University Press. 한국어역 : 강상진, 『철학자와 유대인과 그리스도교인 사이의 대화』, §221. 참조.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정론이 도입될 경우 우리는 곧바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견하게 된다.

이 세계의 존재하는 모든 악들이 결국 사태적 선, 즉 신의 선함으로 수렴된다고 하더라도, 악의 현실을 목도하는 우리는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선으로 수렴 될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존재하는 저 악이 ‘언제’ 선으로 수렴되는 것인지도 장담할 수 없다. 모든 인간은 자신들의 행위가 불러오는 선의 실현에 대해 절대적으로 무지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현실의 악을 목도하면서도 선한 절대자가 세계의 모든 일들이 결국 선해지게 만들었을 것이라 믿는 일 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도덕적 결단과 행위들이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모든 악이 궁극적으로 선으로 수렴될 것이라 믿는 한, 우리가 아무리 악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결국 우리는 선을 행하게 되는 것과 다름없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는 선과 악을 선택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의 행위가 선과 악을 결정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기위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 지라도 그것은 사실 어리석은 일일 뿐이다. 즉 우리의 행위가 행위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신적인 차원에서 선으로 수렴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행하는 선과 악에 대한 도덕적 결단의 의미는 약해진다.

그러나 아벨라르두스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도 인간의 도덕적 행위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신정론에 따르면 행위 자체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행위의 선악에 대한 인식론적인 한계에 부딪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부터 이미 선한 것을 의도하고 행위 하거나, 악한 것을 의도하고 행위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즉, 우리의 행동이 실제적인 선인지 악인지 알 수 없더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또는 타자가 어떤 행위를 선하게 또는 악하게 하는지는 알 수 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구분이 윤리적인 행위와 비윤리적인 행위를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즉 아벨라르두스가 주목하는 부분은 인간의 윤리적 행위에 있어서 그의 행위가 가져올 결과적인 선이 아니라 ‘행위

자의 의도’이다. 아벨라르두스는 “행위에 대한 평가는 오로지 의도에 달려있다.”는 명제로부터 그의 윤리학을 전개하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구분은 어떤 면에선 매우 상식적이다. 우리는 누군가가 결과적으로는 선과 악을 산출해냈더라도, 그러한 선악과는 무관하게 오직 선하게 행동했거나, 악하게 행동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 행위의 선함과 악함을 평가해주는 기준이 되는 상황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악랄한 범죄자에게 처벌을 구형하는 검사를 그가 단지 사람에게 폭력을 가한다는 이유만으로 악하다고 평가하지 않는다. 또 어떤 사람이 비록 다른 회사의 기술을 훔쳐서 자기 회사 사람들에게 이득을 주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가 악을 저지른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즉 우리는 일상적으로도 그 행위자가 불러오는 결과적인 선악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미 드러난 행위자의 의도의 선악으로서 행위자의 도덕적 행위를 평가하는 작업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인간의 윤리적인 행위를 의도의 측면에서 평가하는 이러한 입장이 설득력 있게 보인다면, 이처럼 ‘행위자의 의도’는 행위가 불러올 선에 대한 인간의 인식론적 한계에 도 불구하고 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규범을 제시해주고 타인의 행동을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우리의 자의적인 결정과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신에 의해서 선으로 수렴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선을 피하고, 악을 피하라”는 명제가 무시된 채 우리가 마음대로 행동해도 상관없다는 주장에 정당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행동이 이뤄내는 결과적인 선인 사물적인 선의 산출여부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애초에 선을 의도하고서 이뤄진 것이냐, 악을 의도하고서 이뤄진 것이냐의 문제를 통해서도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아벨라르두스가 제시하는 의도의 윤리학은 그의 독특한 신정론이 가지는 신적 질서(최종적인 선의 수렴)에 대한 인간의 무지가 인간의 도덕적 기준 성립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윤리적 행위가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려는 시도가 말할 수 있다. 그의 윤리학은 결과적인 선과 악에 대한 무지의 한계 내에서도 우리가 따라야 하는 도덕적 규범의 틀을

세우는 것이 가능한지 분석해보고, 그를 실제로 이뤄내려는 작업인 것이다.

3. 결과주의 윤리이론의 규범적 성격과 이중적 구조

공리주의 이론으로 대표되며, 현대의 가장 유력한 윤리이론이라 볼 수 있는 일련의 결과론적 윤리이론들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목적론자에 있어서 행위, 인간, 성품 등이 갖는 가치나 도덕적 성질은 그것들이 산출하고자 하거나 결과하게 될 도덕과 무관한 상대적 가치에 달려있다는 점이다. 옳은 것, 의무가 되는 것, 그리고 도덕적으로 선한 것을 도덕과 무관하게 선인 것에 의존시키게 된다.²⁾

광범위한 형태의 목적론자를 포함하여, 결과론자들은 칸트와 같은 의무론자들의 주장처럼 옳음의 근거를 옳음 자체에 귀속시키는 일이 순환논증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또한 도대체 선과 악, 행복이라는 문제를 제외하고 윤리를 논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지적 해왔다. 칸트에 의하면 비윤리적인 행위는 단지 이성적으로 모순되는 행동이며, 틀린 행동일 뿐이다. 그렇다면 비윤리적인 행위가 단지 수학문제를 틀리게 푸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뿐만 아니라 결과주의 윤리이론의 가장 체계화된 형태인 공리주의는 의무론적 윤리이론이 다음과 같은 매우 근원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원래 천성적으로 행복의 일부분이나 그것을 얻는 데 수단인 것이 아니면 아무런 갈망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이 바람직한 유일한 것이라는 사실에 다른 어떤 증거를 가질

2) 윌리엄 프랑케나, 『윤리학』, 황경식 옮김, 철학과 현실사, 2003. p.43

수도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다. 그렇다면 행복은 인간 행동의 유일한 목적이며, 따라서 행복을 증진해주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결국 그것도 덕 판단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논리의 당연한 귀결이 된다.³⁾

인간의 행위는 행복과 고통이라는 두 가지 동인을 떠나지 않고서는 이뤄질 수 없다. “해야 한다는 것이 할 수 있음을 함축”한다면 인간 행위에 대한 규범인 윤리이론 또한 행복과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 한에서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과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옳은 것은 그 자체로 옳을 수는 없다. 이미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옳음은 그런 좋음을 획득하는 것 또는 추구하는 가운데서 얻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결과론적 윤리이론에서는 당위규범이 어떤 행위를 통해 그 결과물인 좋음이나 어떤 좋은 것들을 실제적으로 획득하는 문제에 한해서만 부여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목적을 실현하는 한에서만 그 당위명령과 그 당위명령의 실행은 옳다. 옳음과 그름이 바로 그 목적의 실현으로 인해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과주의 윤리이론은 궁극적으로 행위와 그 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결과를 분리시켜서 파악하면서 자신들이 규범이 획득해야 할 궁극의 목적을 행위가 아닌 그 결과에 둔다. 요약하자면, 결과주의 윤리론자들은 자신이 획득하고자 하는 ‘어떤 상태’를 위해 행동을 명령한다. 그들이 직접적으로 원하는 것은 바로 그 상태, 즉 어떠한 결과가 이뤄진 상태이지만 그 상태가 직접 명령되거나, 바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들은 단지 ‘행동’을 명령할 수밖에 없다.

결과론적 윤리이론은 위와 같은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이중적인 구조는 생각 외로 쉽게 괴리된다. 다음과 같은 예시를 생각해 보자. 브레이크가 고장난 어느 기차의 기관사 앞에 두 갈림길이 있다. 한 쪽엔 한 사람의 인부가 다른 쪽엔 다섯 사람의 인부가 있어서 기관사는 단지 방향을 돌림으로써만 자신의 윤리적

3) 존 스튜어트 밀, 『공리주의』, 서병훈 옮김, 책세상, 2008. p.82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는 고민 끝에 한사람의 인부가 있는 쪽으로 기차의 방향을 정한다. 다섯 사람의 인부를 죽이는 것 보다는 한사람의 인부를 죽이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윤리적인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어느 테러집단이 바로 그쪽의 선로에 폭탄을 설치한 사실은 몰랐다. 결국 폭탄이 터짐으로서 기관사와 여섯 명 모두가 죽었다.

위의 예시는 결과론적 윤리이론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구조를 잘 보여준다. 윤리이론으로서 결과주의는 기관사로 하여금 사람들의 피해가 조금 덜 발생하는 ‘결과’를 의도하여 행동하도록 지시한다. 그러한 지시와 별개로 그의 그런 행위가 결국 최악의 결과를 불러왔다. 그렇다면 행위의 타당성을 행위가 불러온 결과에 근거 지어야 하는 결과론적 윤리이론은 기관사의 행동을 비난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규범으로서의 지시’와 ‘도덕적 행위에 대한 평가’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완벽하게 조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렇게 글을 쓰는 행위에서조차 우리는 수없이 많은 우연적 요건들과 무의식적인 요건들의 지배를 받는다. 보다 확대시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전혀 의도하지도 못한 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을 수도 있고, 의도하지 못한 채 살인을 일으킬 수도 있다. 행위와 그 행위가 일으키는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리 온전하게 연결되어있지 않다. 둘 사이의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인정하더라도 거기엔 항상 위의 예시가 보여주는 것처럼 상당한 정도의 단절도 존재하는 것이다.

이쯤 되면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최선의 의도가 있다 해도, 그것은 단지 하나의 지옥을 만들 뿐이었다라고 하는 칼 포퍼의 말이 떠오를 만도 하다. 그 지옥은 분명히 능력이 부족하고 무지한 어떤 사람의 선한 의도가 만든 유토피아 일 것이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은 바로 우리 모두이다.

그렇다면 결과론적인 윤리이론은 인간들로 하여금 결과론적 윤리이론이 추구하는 목적을 획득하는데 요구되는 적합한 당위명령을 내릴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의 명령이 그들이 약속한 궁극의 가치를 획

득하는데 기여하지 못하는 한, 그들의 명령은 정당성을 상실한다. 어떤 누군가가 그 명령을 실행하는 자가 의도 했던 그대로 옳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반면에, 다른 누군가는 같은 의도 하에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기 삶의 목적을 어떤 막연한 미래로 미루거나, 또는 이 미래의 도달에 그것을 의존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충분한 의미 실현이 바로 현재의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도록 삶을 마련하라는 결론이 여기에서 생기게 된다. 만일 인간이 삶의 마련에 대한 요구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의 계획이나 희망을 부동켜안고 어떤 상상적인 미래로 도피하여서는 안 된다.⁴⁾

실존철학자들에 의해서 훌륭하게 설명되었듯이 단지 미래에 그 실현을 두고자 하는 어떠한 행위도 그 결과의 실현을 보장받을 수는 없다. 개인의 ‘행동’과 그 행동이 이루고자 하는 ‘사태의 실현’은 언제나 근본적인 인식론적 한계로 인해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과론적 윤리이론이 처한 이와 같은 상황을 다음과 같이 비유할 수 있다. 만일 어떤 보스가 자신의 부하에게 이러저러한 일을 시킨 후 그 뒷일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하자. 그러나 보스가 정작 재판장에서는 자신에게 충성을 바쳤던 그 부하에게 오히려 죄를 뒤집어 씌운다면, 우리는 그 보스를 배신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의미에서 결과주의 윤리이론과 그 추종자들이 최종적으로 맞닥뜨리는 결론은 분명한 ‘배신’이다.

물론 인간이 자신의 행위가 불러올 결과에 대한 완전한 지식에는 이를 수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행위가 특정한 결과와 상당한 정도의 인과적 개연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개연성이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 인간의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는 인간의 행위가 불러올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차츰 소멸시켜가는 중이기도 하다. 따라서 결과론적 윤리이론이 완전히 불안정한 토대위

4) O. F. 블로우, 『실존철학 입문』, 최동희 옮김, 간디서원, 2006. p.161

에 서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인간의 행위와 그 행위가 불러올 결과가 어느 정도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나, 인간과 자연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인간 행위의 불확실성을 차츰 줄여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필자가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여전히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해 현재로서 불확실한 상태에 있으며, 그러한 불확실성의 상태는 우리의 과학이 인간의 모든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인과적으로 완벽한 설명과 결정론적인 예측을 제공하는 먼 미래의 어느 순간이 되지 않는 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필자의 논점은 인간의 행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행위가 불러올 결과를 당위의 목적으로 삼는 윤리이론이 엄밀한 당위 명령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에 있다. 당위 행위는 칸트가 그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과 같이 ‘그 어떠한 상황과 자연적 원인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위해서 행해야만 하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행위결정이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사회적 보상과 엄격한 처벌이 가해짐으로써 한 사람의 생애 전체의 방향을 좌지우지하기도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당위문제는 개인의 차원에서서는 한 사람의 행위와 인생의 행로를 결정짓는 문제이며, 사회적으로 용인과 불용의 경계를 법적으로 분명히 하고 있는 영역이다. 그런데도 결과론적 윤리이론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인간 인식의 불확실성의 경계 언저리에 모호하게 위치 지우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만일 결과론적 윤리이론이 서 있는 전제보다 더 확실한 윤리 판단의 토대가 존재한다면, 우리의 윤리적 판단은 당연히 그러한 토대 위에 서 있어야 할 것이다.

4. 신정론과 결과론적 윤리이론의 공통된 한계와 의도의 윤리학

위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규범적 기준이란 쉽게 변하지 않는 고정

된 행위의 틀이어야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그것이 어떤 목적을 획득하고자 하는 규범적인 행위의 기준이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 목적 달성을 미래로 돌려서는 안 된다.

따라서 그것이 규범 윤리론이고자 한다면, 그것은 어떤 특정한 결과의 실현을 목적으로 규범을 제시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 규범이 우리에게 일관된 기준을 제시해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규범을 우리 행동의 원칙으로 삼음으로써 결국 우리의 의도와 그 결과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윤리적 상황판단의 혼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혼란은 결국 윤리적 판단중지의 상태로 우리를 몰아가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윤리론이라면 결과와 상관없이 옳은 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윤리론이 자기 자신이 명령한 것을 나중에 가서 자신이 명령한 일이 없다고 배신하는 일이 없으려면, 그 명령 자체나 또는 명령의 실행 자체로 평가받는 일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아벨라르두스의 의도의 윤리학에 주목해 보자.

아벨라르두스의 신정론과 결과주의 윤리론은 그들이 제시하는 인간 규범의 행위와 그 행위를 통해 획득하고자 하는 선의 상태가 근본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론이 기반하고 있는 선의 획득이 그 윤리론의 당위명령은 정당화해 주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 아벨라르두스의 신정론이 전제하고 있는 인간의 불완전함과 인식론적인 한계는 궁극적인 선의 실현에 대한 인간의 무력감을 환기시켜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신에 의한 선의 실현을 믿는 일은 결국 인간의 자유와 행위에 대한 가치기준의 부재상태로 몰고 가는 듯 보인다. 아벨라르두스의 신정론이 마주쳐야 하는 이러한 혼란은 정확히 현대의 결과론적 윤리론의 신봉자들이 마주치는 혼란과 동일하다. 선이 신에 의해서 확보되는 것이든, 인과적 사건의 연쇄가 도달하는 결과적 선의 발생으로 설명되는 것이든, 인간의 인식적 한계는 행위의 규범에 있어서 확보되는 결과적인 선에 대한 확신을 방해한다. 아벨라르두스는 이러한 혼란을 예견했고, 인간의 인식론적 한계 속에서도 우리의 행위 기준으로서 역할 할 수 있는 당위기준을 세우고자 한다. 아벨라르두스는 우리의

‘의도’가 그 기준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고, 의도를 기초로 삼는 의도의 윤리학을 전개한다.

아벨라르두스가 의도의 윤리학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의도했던 것은 어떤 행위가 최종적으로 선이 되느냐, 악이 되느냐의 문제와 상관없이 인간이 마땅히 해야만 하는 윤리규범을 제시하는 일이었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윤리적인 가치규범으로서 수용할 수 있는 명제는 결국 “너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네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다. 이는 결국 윤리적 판단의 기준이 최종적인 선이거나, 행위를 통해 산출되는 결과물이 아니라 ‘행위자의 의도’가 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아벨라르두스가 제시하는 의도의 윤리학은 행위가 불러오는 목적의 실현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의도 자체에 집중함으로써 당위 규범으로서의 일관성을 상실하지 않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아벨라르두스가 제시하는 의도의 윤리학이 그 자신의 신정론이 가진 한계를 성공적으로 보완해주었던 것처럼, 현대의 결과주의 윤리이론이 마주쳐야 하는 한계에도 동일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5. 의도의 윤리학의 한계

1,000년의 시간차가 나는 두 사상을 비교하면서, 현대의 사상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만 강조하고, 과거의 사상이 현대의 사상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 무책임하게 주장하는 일은 공정하지 못하다. 결과론적 윤리이론 또한 어느 날 하늘에서 똑 떨어진 이론이 아니라 이전의 윤리이론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면서 나온 것이며, 아벨라르두스 이후 1,000년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의도의 윤리학은 해명할 필요가 없었던 여러 까다로운 문제들을 소화하고 그를 극복하는 성과를 내놓은 이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마지막에 이르러 필자는 의도의 윤리학이 현대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는 사

실을 보이기 위해 해명해야 하는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 문제는 다음과 같다.

의도의 윤리학의 가치 판단 기준은 '선한 의도'와 '악한 의도'가 가지는 차이에 기반 해 있다. 그러나 아벨라르투스에게 있어서 도대체 무엇이 선하게 의도하는 것이고 무엇이 악하게 의도하는 것인지 그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의도'의 내용이 가지는 모호성은 의도의 윤리학이 결과론적 윤리이론에 대해 가졌던 이론적 장점을 상쇄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더 심각한 일은 선한 의도와 악한 의도가 단순히 모호하기만 할 뿐이 아니라 오히려 결과론적 윤리이론의 틀로서 더욱 타당하게 설명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점이다.

사실상 의도란 그 자체로서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의도란 항상 '무엇의 실현'에 대한 의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한 의도란 결국 선한 사태의 실현에 대한 의도이다. 우리는 결과주의적인 방식으로 누군가의 행복이 선이고 누군가의 불행이나 고통은 악이라고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렇다면 행위자로서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의 생각에 비추어 우리의 행위가 산출해 낼 것이라 여겨지는 선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비록 각자가 생각했던 그 선이 산출되지 않는더라도, 우리가 머릿속으로 얼마나 큰 선을 의도했느냐에 따라서 선의 충위를 두는 것이 가능하다. 아무래도 한 명의 이익을 생각해서 행동한 사람보다는 인류 전체의 이익을 생각해서 행동한 사람이 비록 그런 결과의 실현에서는 실패하더라도 보다 더 선한 것 같다. 그렇다면 최대한의 선을 산출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최대한 정확하고 많이 알수록 인간은 보다 큰 선을 의도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다 더 윤리적인 행동을 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따라서 윤리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위가 더 큰 선을 불러올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결과론적 윤리이론이 가졌던 선과 악에 대한 논의를 의도의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반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행위의 선함을 앞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이런 결론은 의도의 윤리학이 나온 배경인 인간의 인식론적 한계라는 문제점을 의도의 윤리학에 다시 도입하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반론은 아벨라르두스의 ‘의도’ 개념을 결과론적 윤리이론의 틀로서만 해석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은연중에 의도가 목적하고 있는 ‘선이나 악의 크기’에 의해 의도의 선과 악의 크기도 결정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아벨라르두스는 공리주의와 같이 선과 악의 총량 비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며, 정도의 차이 없는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구도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의도의 윤리학에 보다 근원적인 반론은 사실 다음과 같은 것이다. 비록 의도의 윤리학이 선과 악의 총량에 대한 판단을 중지함으로써 결과론적 윤리학이 마주치는 것과 같은 선과 악에 대한 인식론적 한계라는 문제점을 비껴나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도의 윤리학에 충실한 윤리판단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선과 악에 대한 반론의 여지없는 확실한 기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우리가 행위자의 선한 의도와 악한 의도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행위의 선과 악을 판정하게 해주는 기준의 역할을 하기에는 여전히 불충분한 것처럼 보인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말처럼 나쁜 일에도 언제나 이유는 달 수 있기 마련이다.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들이더라도 일반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어디까지나 선한 의도에서 행해진 것이라 주장한다. 아벨라르두스 본인이 비판하고자 했던 유대인들도 결국에는 자신들의 생각 내에서는 하느님을 경배하려는 최선의 의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기독교를 탄압했다는 주장이 의도의 윤리학에서는 불가능하지 않다. 그들의 행위가 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도 그들의 의도까지 악한 것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

보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예시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어느 날 어떤 약사가 너무 졸렸던 나머지 약국에 찾아온 환자에게 실수로 약을 잘못 주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처방으로 인해, 환자가 죽었다. 이 경우 약사가 잘못된 약을 준 것이 악한 의도였다고 평가 할 수는 없다. 그로서는 최대한 환자의 병이 낫길 바라는 선한 의도에서 한 행위였지만 당시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실수로

약을 잘못 준 것일 뿐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약사의 행위가 선한 것이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오히려 약사가 처벌을 받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그 외에도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히틀러와 같이 자기 자신의 유토피아를 실현하려 했던 선한 의도의 행위가 불러온 씻을 수 없는 악들을 조망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예시를 통해 우리는 아무리 의도가 선하다고 해도 그 행위가 결국 치명적인 악과 파국을 불러왔을 때, 그 행위를 선하다고 평가하는데 머뭇거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결국 의도의 윤리학만으로 윤리 규범의 체계를 세우는 것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아벨라르두스 또한 이러한 한계를 자각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결국 선한 행위는 '진정한 선에 대한 참된 앎'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의도의 윤리학도 바로 진정한 선에 대한 참된 앎에 근거해 있어야만 올바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벨라르두스의 이런 해결책은 다시 의도의 윤리학이 출현한 근원적 문제점이었던 인간의 인식론적 한계라는 문제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의 윤리학은 결국 빠져나오지 못할 딜레마와 마주하게 되는 것일까?

6. 마치며 : 아벨라르두스 윤리학의 의의와 남은 논의점

필자는 앞서 아벨라르두스의 윤리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그의 신정론이 가진 독특한 체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신정론은 신의 질서 속에서 이뤄지는 선의 영역과 우리의 자유로운 규범적 행위가 이중적인 차원에서 조화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리고 우리는 구분된 그 각각의 영역에 '신앙'과 '윤리학'이라는 이름을 붙여볼 수 있다.

그러나 아벨라르두스의 체계에서 이 두 영역은 사실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다. 우리가 신앙의 영역에서만 아벨라르두스의 체계를 조망하고자 한다면 사실 '인간은 그 스스로 어떠한 행동을 하던지 상

관없이 신의 선으로 수렴될 것'이라 말하고, '인간의 윤리학은 따로 세울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게 정직한 일일 것이다. 완전한 신앙이 있다면 이 명제는 거짓 없는 진실로 느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순전히 윤리학의 관점에서만 보자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선이 될지 악이 될지 알 수 없다.'고 정직하게 멈춰야 한다. 그것이 실제로 선이 될 것이라 가정하는 일은 오직 세계의 절대자로서의 신에 대한 신앙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아벨라르두스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주장한다. 그 스스로 자신의 체계가 이 두 가지 모두의 조화로서 완성될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 자신의 윤리학이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은 순간에 이르러, 그는 인간의 인식론적 한계를 신의 계시와 그에 대한 인간의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아벨라르두스는 기독교인이었으며, 윤리적 행위를 위한 인식론적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 즉 성령이 전해주는 신의 말씀과 고난과 죽음, 부활로 이뤄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일러준 복음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아벨라르두스는 인간의 윤리적 행위에 대한 이성의 인식론적 한계를 신앙의 차원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극복하려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그의 시도는 윤리적 행위에 대한 앎과 의도 사이의 딜레마는 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선한 의도가 기대고 있는 토대는 앎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딜레마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을지언정 아벨라르두스의 의도의 윤리학이 보여준 이러한 논리적 비약과 이로 인해 발행할 다른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의도의 윤리학이 믿음의 차원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우리는 아벨라르두스의 의도의 윤리학이 합의와 검증이 불가능한 '윤리적 상대주의'를 허용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고 정당하게 반박할 수 있다. 비록 아벨라르두스 본인은 제한 없는 모든 믿음이 아닌 진정으로 '참된' 믿음만을 의도의 윤리학이 서있어야 하는 올바른 토대라고 주장하긴 했지만 말이다.

아벨라르두스의 시도는 대다수의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변을 이 지면에서는 낼 수 없겠지만, 그것은

분명 윤리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차원을 연 것이며, 그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여전히 필자에게 과제로 남아있다.

참고문헌

<1차 문헌>

Abelard, Peter., *Collationes*, edited and translated by John Marenbon and Giovanni Orlandi :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한국어역 : 강상진, 『철학자와 유대인과 그리스도교인 사이의 대화』, §208-227.

<2차 문헌>

강상진, 「아벨라르두스 윤리학의 의도개념 연구」, 『중세철학』 15권, 2009. pp.71-97.
 밀, J. S., 『공리주의』, 존 스튜어트 밀, 서병훈 옮김, 책세상, 2008.
 볼노우, O. F., 『실존철학 입문』, O. F. 볼노우, 최동희 옮김, 간디서원, 2006.
 프랑케나, W. K., 『윤리학』, 윌리엄 프랑케나, 황경식 옮김, 철학과 현실사, 2003.